

제 ① 교시

국 어

홀수형

수험번호 ( )

성 명 ( )

※ 다음 물음에 대한 가장 옳은 답을 하나만 골라, OMR 답안지에 정확히 표기하시오.

[1~4]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단어의 형성 방법이 다른 하나는?

- ① 햇감자      ② 보슬비      ③ 단풍잎      ④ 은쟁반

2. 두 단어가 상하 관계인 것은?

- ① 전쟁 - 평화                      ② 성공 - 실패  
③ 문학 - 소설                      ④ 축소 - 확대

3. 단어의 발음이 바르게 표기된 것은?

- ① 아쉽다[아십따]                      ② 받는다[반는다]  
③ 깨끗이[깨끄치]                      ④ 숟가락[숙가락]

4. 어법에 맞고 정확한 문장은?

- ① 동생이 춤과 노래를 불렀다.  
② 어머니, 올해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③ 공공 장소에서는 흡연을 삼가해 주십시오.  
④ 노란 우산을 들고 있는 친구의 언니를 만났다.

[5~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山脈)들이  
바다를 연모(戀慕)해 휘달릴 때도  
참아 이 곳을 범(犯)하던 못 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부지런한 계절(季節)이 피여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나리고  
매화 향기(梅花香氣)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白馬)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이 광야(曠野)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 이육사, 「광야(曠野)」 -

(나) ㉠우려라 우려라 새여 자고 니러 우려라 새여.

넉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작자 미상, 「청산별곡(靑山別曲)」 -

5.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 있다.  
② 자연 친화적 사상이 지배적이다.  
③ 민요조의 율격이 나타나고 있다.  
④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6. (가)에서 시적 화자의 미래 지향적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난 연은?

- ① 1연                      ② 2연                      ③ 3연                      ④ 5연

7. (가)에서 함축적 의미가 대립되는 시어끼리 짝지어진 것은?

- ① 산맥 - 바다                      ② 광음 - 계절  
③ 눈 - 매화 향기                      ④ 백마 - 초인

8. (가)를 <보기>의 '내재적 관점'에 따라 감상한 것은?

<보기>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에는 외재적 관점과 내재적 관점이 있다. 외재적 관점은 작품을 작가, 사회, 독자 등 외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내재적 관점은 작품을 언어나 구조 등 내적인 측면에서 분석한다.

- ① 의지적 어조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② 시인 이육사의 지사적 면모가 드러나 있다.  
③ 일제 강점기라는 민족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④ 자기희생적 삶의 자세는 독자에게 교훈을 준다.

9. 시어의 배열 구조가 ㉠과 다른 것은?

- ① 접동 접동 아우래비 접동  
② 가시리 가시리잇고 브리고 가시리잇고  
③ 우는 거시 벅구기가 프른 거시 벼들습가  
④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운봉이 하는 말이 “이러한 잔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적사오니 차운(次韻) 한 수씩 하여 보면 어떠하오?”

“그 말이 옳다.” 하니 운봉이 운(韻)을 낼 제, 높을 고(高)자, 기름 고(膏)자 두 자를 내어 놓고 차례로 운을 달 제, 어사또 하는 말이

“결인도 어려서 추구권(抽句卷)이나 읽었더니, 좋은 잔치 당하여서 주호를 포식하고 그저 가기 무렵(無廉)하니 차운 한 수 하사이다.”

운봉이 반겨 듣고 필연(筆硯)을 내어 주니 좌중(座中)이 다 못하여 글 두 귀[句]를 지었으되, 민정(民情)을 생각하고 본관의 정체(政體)를 생각하여 지었었다.

「“금준미주(金樽美酒)는 천인혈(千人血)이요, 옥반가호(玉盤佳肴)는 만성고(萬姓膏)라. 촛루낙시(燭淚落時) 민루낙(民淚落)이요, 가성고처(歌聲高處) 원성고(怨聲高)라.”

이 글 뜻은,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만 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았더라.”

이렇듯이 지었으되, 본관은 몰라보고 운봉이 이 글을 보며 내념(內念)에 ‘아빨사, 일이 났다.’

이 때, 어사또 하직하고 간 연후에 공형(公兄) 불러 분부하되, “야야, 일이 났다.”

공방(工房) 불러 포진(鋪陳) 단속, 병방(兵房) 불러 역마(驛馬) 단속, 관청색 불러 다담 단속, 옥 형리(刑吏) 불러 죄인 단속, 집사(執事) 불러 형구(刑具) 단속, 형방(刑房) 불러 문부(文簿) 단속, 사령 불러 합번(合番) 단속, 한참 이리 요란할 제 물색없는 저 본관이

“여보, 운봉은 어디를 다니시오?”

“소피(所避)하고 들어오오.”

본관이 분부하되, “춘향을 급히 올리라.”

고 주광(酒狂)이 난다.

이 때에 어사또 군호(軍號)할 제, 서리(胥吏) 보고 눈을 주니 서리, 중방(中房) 거동 보소. 역졸(驛卒) 불러 단속할 제 이리 가며 수군, 저리 가며 수군수군, 서리 역졸 거동 보소. 외울 망건(網巾), 공단(貢緞) 찢기 새 평립(平笠) 눌러 쓰고 석 자 감발 새 짚신에 한삼(汗衫), 고의(袴衣) 산뜻 입고 육모방치 녹피(鹿皮) 끈을 손목에 걸어 쥐고 예서 번뜻 제서 번뜻, 남원음이 우군 우군, 청과 역졸(靑坡驛卒) 거동 보소.

- 작자 미상, 「열녀 춘향 수절가(烈女春香守節歌)」-

10.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해학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
- ② 운율이 느껴지는 문체를 사용하였다.
- ③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꿰뚫고 있다.
- ④ 주인공의 초현실적인 능력을 다루고 있다.

11. 시적 화자의 현실 인식이 ㉠와 가장 유사한 것은?

① 새로 짜낸 무명이 눈결같이 고왔는데, / 이방 줄 돈이라고 황두가 뺏어 가네. / 누전 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급하구나, / 삼월 중순 세곡선(稅穀船)이 서울로 떠난다고.

- 정약용, 「탐진촌요(耽津村謠)」-

② 보슬보슬 봄비는 못에 내리고 / 찬 바람이 장막 속 스며들 제 / 뜯지름 못내 이겨 병풍 기대니 / 송이송이 살구꽃 담 위에 지네.

- 허난설헌, 「봄비」-

③ 가을 바람에 괴로이 읊조리니, / 세상에 알아주는 이 없네. / 창 밖엔 밤 깊도록 비만 내리는데, / 등불 앞에 마음은 만 리 밖을 내닫네.

- 최치원, 「추야우중(秋夜雨中)」-

④ 비 갠 긴 언덕에는 풀빛이 푸른데, / 그대를 남포에서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 대동강 물은 그 언제 다할 것인가, /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는 것을.

- 정지상, 「송인(送人)」-

12. 위 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어사 출도 직전의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 ② 눈치 빠른 운봉의 대응으로 갈등이 해결되고 있다.
- ③ 역졸들은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
- ④ 좌중의 너그러운 덕담에 잔칫집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孔·공子·지 ㉠曾중子·즈드·려 ㉡닐·려 글으·샤·디·몸  
·이며 얼 굴·이며 머·리털·이·며·술·훈父·부母:모·씨  
받즈·온 거·시·라 敢:감·히 ㉢힐·위상히·오·디 아·니  
:흙·이:효·도·익 비·르·소미·오·몸·을 세·위 道:도  
·를 行형·히·야 ㉣일:흙·을 後:후世:세·예:배퍼·씨父  
·부母:모를:현·더케:흙·이:효·도·익 ㅁ·춤·이니·라  
- 「소학언해(小學諺解)」 권 제2, 선조(宣祖) 20년(1587년) -

13. 위 글의 주제는?

- ① 신(信)의 의의와 가치      ② 예(禮)의 본질과 실천
- ③ 효(孝)의 시작과 마침      ④ 충(忠)의 방법과 자세

14. ㉠~㉣에 대한 현대어 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 증자에게      ② ㉡ - 일어서서
- ③ ㉢ - 험하게 하여      ④ ㉣ - 이름

15. 위 글에 나타난 국어의 모습이 아닌 것은?

- ① 주격조사 ‘가’가 사용되었다.
- ② 성조를 표시하는 방점이 있었다.
- ③ 모음조화 현상이 대체로 지켜졌다.
- ④ 끊어 적기가 부분적으로 사용되었다.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지만, 아무리 간곡한 말씨로 거듭 타일러 봐도 구렁이는 좀처럼 움직일 기척을 안 보였다. 이 때 울바자 너머에서 어떤 아낙네가 뱀을 쫓는 묘방을 일러 주었다. 모습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리는 그 여자는 머리카락을 태워 뱀새를 피우면 된다고 소리쳤다.

외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나는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얻으러 안방으로 달려갔다.

할머니는 거의 시체나 다름이 없는 뻣뻣한 자세로 자리에 누워 있었다. 숨은 겨우 쉬고 있다 해도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였다. 할머니의 주변을 둘러싸고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사색이 다 되어 그저 의원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는 식구들을 향해 나는 다급한 소리로 용건을 말했다. 누구에게랄 것 없이 아무한테나 던진 내 말이 무척 엉뚱한 소리로 들렸던 모양이다.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이런 때 도대체 어디에 소용될 것인지를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기엔 꽤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고모가 인사불성이 된 할머니의 머리를 참빗으로 빗기는 텐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빗질을 여러 차례 거듭해서 얻어진 한 줌의 흰 머리카락이 내 손에 쥐어졌다. 언제 그렇게 준비를 해 왔는지 외할머니는 도래소반 위에다 간단한 음식 몇 가지를 차리는 중이었다. 호박전과 고사리나물이 보이고, 대접에 그득 담긴 냉수도 있었다. 내가 건네주는 머리카락을 받아 땅에 내려놓은 다음, 외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늙은 감나무를 올려다보았다.

“자네 오면 줄라고 노친께서 여러 날 들여 장만한 것일세. 먹지는 못할망정 눈요구라도 허고 가소. 다야 자네 노친 정성 아닌가? 내가 자네를 쫓을라고 이러는 건 아니네. 그것만은 자네도 알아야 되네. 남새가 나드라도 너무 섭섭타 생각 말고, 집안일일랑 아모 걱정 말고 머언 걸음 부데 편안히 가소.”

이야기를 다 마치고 외할머니는 불씨가 담긴 그릇을 헤집었다. 그 위에 할머니의 흰 머리를 올려놓자, 지글지글 끓는 소리를 내면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단백질을 태우는 노린내가 멀리까지 진동했다. 그러자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야말로 희한한 광경에 놀라 사람들은 저마다 탄성을 올렸다. 외할머니가 아무리 타일러도 그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그토록 오랜 시간을 버티던 그것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감나무 가지를 친친 감았던 몸뚱이가 스르르 풀리면서 구렁이는 땅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떨어진 자리에서 잠시 머뭇거린 다음, 구렁이는 꿈틀꿈틀 기어 외할머니 앞으로 다가왔다. 외할머니가 한쪽으로 비켜 서면서 길을 터 주었다. 이리저리 움직이는 대로 뒤를 따라가며 외할머니는 연신 소리를 질렀다. 새막에서 참새 떼를 쫓을 때 처럼 “쉬이! 쉬이!”

- 윤홍길, 「장마」 -

16.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인칭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역행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 ③ 토속적인 분위기가 드러나고 있다.
- ④ 민간 신앙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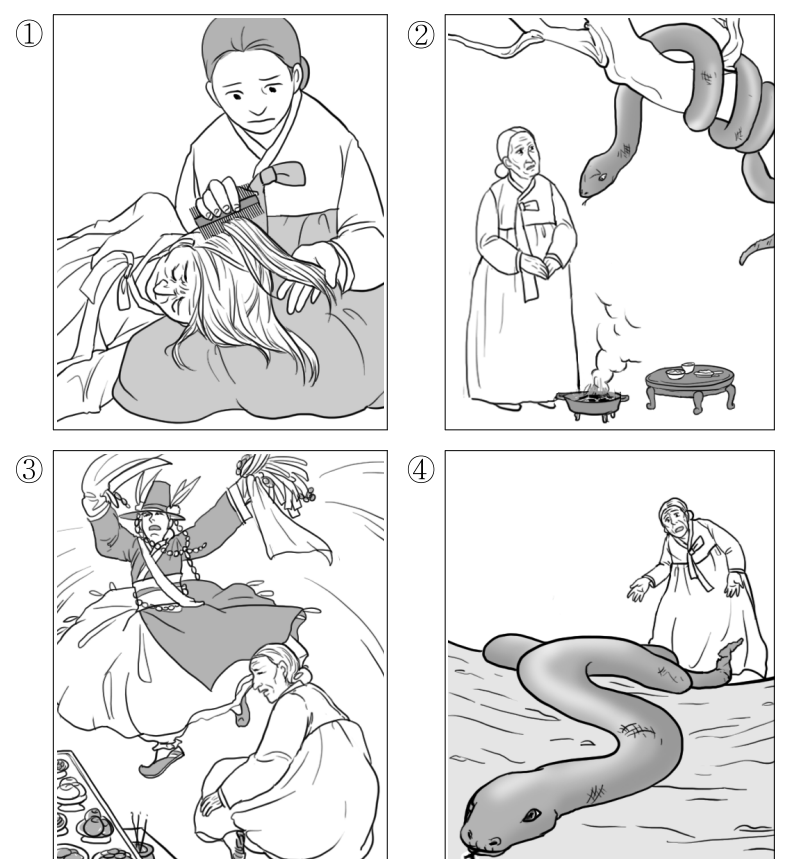
17. ㉠에서 구렁이를 대하는 인물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 ①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 ②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고 있다.
- ④ 불만을 꾸밈조로 털어놓고 있다.

18. 각 인물들이 했을 법한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떤 아낙네가 외할머니를 향해서  
“구렁이 쫓는 디는 머리카락 태우는 게 최고여.”
- ② 내가 식구들에게 헐레벌떡 뛰어가서  
“외할머니가요, 할머니 머리카락 빨리 가져 오라셔요.”
- ③ 할머니가 머리카락을 가져가는 나를 향해  
“그그 외할매는 참 알다가도 모를 양반이여.”
- ④ 꿈쩍하지 않던 구렁이가 서서히 움직이자 한 사람이  
“오매, 저저 봐. 신기하게 구렁이가 가네.”

19. 위 글을 영상물로 제작할 때, 적절하지 않은 장면은?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은 영조·정조 시대 북학과(北學派)의 대표적 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그가 지은 ‘열하일기(熱河日記)’나 ‘방경각외전(放橋閣外傳)’에 실려 있는 소설이, 몰락하는 양반 사회에 대한 신랄한 풍자(諷刺)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문장이 또한 기발하여, 그는 당대의 허다한 문사들 중에서도 최고봉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추앙(推仰)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문학은 패관 기사(稗官奇書)를 따르고 고문(古文)을 본받지 않았다 하여, 하마터면 ‘열하일기’가 촛불의 재로 화할 뻔한 아슬아슬한 장면이 있었다. 말하자면, 연암은 고문파(古文派)에 대한 반향을 통하여 그의 문학을 건설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민족 문화의 전통을 연암에게서 찾으려고는 할지언정, 고문파에서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민족 문화의 전통에 관한 해명의 열쇠를 제시하여 주는 것은 아닐까?

전통은 물론 과거로부터 이어 온 것을 말한다. 이 전통은 대체로 그 사회 및 그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전통은 우리의 현실에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과거에서 이어 온 것을 무턱대고 모두 전통이라고 한다면, 인습(因襲)이라는 것과의 구별이 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습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계승해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에서 이어 온 것을 객관화하고,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 서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 비판을 통해서 현재의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이같이 전통은 인습과 구별될뿐더러, 또 단순한 유물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현재의 문화를 창조하는 일과 관계가 없는 것을 우리는 문화적 전통이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느 의미에서는 고정불변(固定不變)의 신비로운 전통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기보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전통을 찾아 내고 창조한다고도 할 수가 있다.

- 이기백, 「민족 문화의 전통과 계승」 -

20.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반된 견해를 제시한 뒤 이를 절충한다.
- ② 설의법을 통해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한다.
- ③ 대상을 비교, 대조하여 의미를 부각시킨다.
- ④ 사례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주장을 뒷받침한다.

21. 위 글에서 전통이 인습과 구별되는 기준은?

- ① 고정되어 변함이 없는가?
- ② 과거로부터 이어 온 것인가?
- ③ 사회 구성원의 몸에 배어 있는가?
- ④ 현재의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가?

22. 위 글의 주제와 관계 깊은 한자성어는?

- ① 아전인수(我田引水)      ② 온고지신(溫故知新)
- ③ 안빈낙도(安貧樂道)      ④ 연목구어(緣木求魚)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입의 모양도 다양하다. 입이 크고 입술이 도톰한 경우도 있고, 작지만 윤곽이 뚜렷하거나 입술이 얇으면서 맵시 있는 경우도 있다. 전자는 평민층에 많은데, 구강이 드러나도록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후자는 특히 양반들에게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눈은 검은 편이지만, 암갈색에서 담갈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부분 광대뼈가 나와 있다. 이마는 마치 유행이라도 따르듯이 대체로 높이 솟아 있어 이지적으로 보인다. 귀는 작고 균형이 잘 잡혀 있다. 사람들의 평상시 표정은 약간 얼뜬 듯하면서도 명랑하다. 사람들의 전반적인 신체 형상은, 특히 잘생긴 사람들의 경우, 힘이나 강인한 의지력보다는 지적 총명함이 더 돋보이는 인상을 준다. 한국 사람들은 분명히 잘생긴 인종이다.

사람들의 체격도 좋다. 남자의 평균 키는 약 164센티미터이다. 여자의 평균 키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남자에 비해 걸맞지 않게 작다. 사람들의 볼품 없는 외양은 대단히 보기 흉한 옷차림 때문에 더욱 그 결함이 과장되어 땅딸막하고 평퍼짐하게 보인다. 손과 발은 성별과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매우 작고, 희며, 아주 섬세하다. 끝이 가늘고 아몬드 모양을 한 손톱은 잘 다듬어져 있다. 남자들은 아주 힘이 세어, 짐꾼들은 45킬로그램 정도의 짐도 대수롭지 않게 나른다. 양반들의 점잔빼는 걸음걸이든, 일 보러 가는 평민들의 또박또박한 걸음걸이든, 한국 사람들은 매우 잘 걷는다.

- 이사벨라 버드 비숍, 「외국인의 눈에 비친 19세기 말의 한국」 -

2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한국인은 옷차림새로 볼 때 세련되고 멋스럽다.
- ② 여자들의 평균 키는 남자들의 평균 키와 비슷하다.
- ③ 양반들은 입이 크고 입술이 도톰해 인상이 넉넉하다.
- ④ 한국 남자들은 손발이 작고 섬세하며 매우 잘 걷는다.

24. 위 글의 주된 내용 전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서사      ② 정의      ③ 묘사      ④ 과정

2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한국인의 개인적 기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②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국인을 재해석하고 있다.
- ③ 한국인의 신체적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 ④ 한국인에 대한 관찰과 의견이 두루 나타나고 있다.

※ 확인사항

자신의 문제지 문형(홀수형)이 정확한가?

답을 OMR 카드의 해당란에 정확히 표기하였는가?